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친환경개발·도민 삶의 질 향상 '방점'

제주 미래 담을 계획에 전향적 패러다임 적용
2022~2031년 저성장 시대 진입 등 여건에 맞춰
참여형 계획·전략 계획·실현성 강화 등 주안점

국제자유도시 출범 20년을 앞두고 제주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할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친환경 개발 방향 및 환경자원 보전 대책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및 소득향상이라는 패러다임이 적용될 전망이다.

특히 저성장 시대 진입을 비롯 양극화 등 경제변화와 4차 산업혁명 등 기술변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변화 같은 사회·행정의 변화에 맞춰 종합계획이 수립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1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만료시기(2012~2021년) 도래에 따른 국제자유도시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모

색하고 중장기 추진전략 마련을 통해 제3차 종합계획(2022~2031년)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서 2003년 제1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이후 모두 네차례에 걸쳐 종합계획(수정계획 포함)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제2차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우선 제3차 종합계획은 ▷참여형 계획 ▷전략 계획 ▷실현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기존의 계획체계와 수립방식 등을 대폭 개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제3차 종합계획은 기존의 계획에 대한 문제점 분석을 통해 개선방향

을 찾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도 특징이다.

국제자유도시 제도 및 성과와 관련 그동안 국제자유도시 폐지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가 하면 주요 프로젝트의 성과 미흡 등을 고려해 국제자유도시 추진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득력 있게 대외적으로 제시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을 정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또 그동안의 계획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 미흡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국제사업 등의 발굴·제시 기능강화와 더불어 정부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 제도개선과 연계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기존계획에 국제자유도시 방향성을 관광휴양, 비즈니스, 첨단지식산업, 물류, 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불분명했다는 지적에 따라 제주의 특징을 포함해 잠재력과 제약요인, 국제적 경쟁력

비교우위 등을 감안한 명확한 발전 목표 및 주력 육성산업을 제시할 계획이다.

계획내용 및 방법에 대해서도 도민계획단 운영 등 도민참여 활성화와 도민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 개발과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JDC의 역할과 관련 역할 및 기능 정립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제시하는가 하면 미진 프로젝트 관리방향과 신규사업 발굴 등에 대한 역할(관여)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게 됐다.

한편 제주도는 제3차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에 앞서 체계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수립방향을 설정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까지 제주연구원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3차 종합계획 기본설계 범위를 마련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2면

“제주 마을의 기록을 찾습니다”

도내 마을 공동체 기록
도, 홈페이지 통해 접수

제주특별자치도가 마을 공동체 기록 관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마을 공동체 관련 기록유산 보존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9월 27일까지 제주의 마을 기록을 기증 수집한다고 13일 밝혔다.

기증 희망자는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u.go.kr)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전자우편(yoonsuyang7@korea.kr)으로 송부하면 된다.

도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기증자에게는 기증증서를 수여하고, 자료와 관련된 기획전이 열릴 경우 우

선적으로 전시하게 된다. 또 기록관 주요 행사에 초대하는 등의 예우를 할 예정이다.

제주자치도는 2019년도 민간기록물 수집을 통해 ▷마을에서 펴낸 향토지 ▷마을 공동체 사업 관련 문건, 필사본 ▷농사일지 ▷마을회의기록 등을 보강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과거 제주 마을 공동체의 삶이 담긴 자료와 제주의 변천사를 볼 수 있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전시함으로써 멸실되고 있는 제주의 기록유산을 보존하고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기증문화 활성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수집 취지를 밝혔다. 문의 064-710-6444.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4·3, 세대전승·세계화로 한마음

4·3평화재단, 12~14일 국내외 대학생 4·3평화캠프

제주4·3의 역사적 진실을 국내외 대학생들에게 알리면서 4·3의 세대전승과 세계화를 위한 행사가 눈길을 끌고 있다.

제주4·3평화재단은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4·3평화공원과 4·3유적지 일대에서 '2019 국내외 대학생 4·3평화캠프'를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행사는 국내 대학생과 해외 대학생들을 나눠 진행했던 기존과 달리 통합 운영함으로써 제주4·3을 기반으로 대학생들의 지속적인 국제교류·제주문화 이해 등을 지향하고 있다.

이번 캠프 참가자는 80명인 가운데 특히 아시아·아프리카·유럽·중남미 등 4개 대륙 36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 50명이 참가해 4·3세계화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고 제주4·3평화재단은 기대감을 표했다.

참가자들은 첫날 제주팔레스호텔에서 개강식을 가진 후 '제주문화의 이해(송정희 제주국제화센터 대표)'와 '제주4·3의 이해(백가운 제주다크투어 대표)' 특강을 받았다.

둘째날은 4·3평화공원을 방문해 위령제단을 참배하고 기념관을 관람하면서 4·3역사와 의의 등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북촌너른 숲이4·3기념관을 방문해 평화·인권 의 소중함을 나누고 만장굴 관람, 해녀태극 만들기 등을 통해 제주의 자연과 문화도 직접 체험했다.

마지막날인 14일은 제주4·3과 인권을 주제로 한 조별발표로 행사가 마무리된다. >>관련기사 2면

조상윤기자

오는 28일 KBS제주서 제2공항 1차 TV토론회

주관방송사 추천 통해 선정
내달 3~4일 중 2차 토론회

제주 제2공항건설 관련 1차 TV토론회가 오는 28일 오후 7시10분부터 8시30분까지 80분간 KBS제주를 통해 생방송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의 실무 협의 결과 당초 3회에서 2회로 TV토론회를 진행키로 최종 합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주관 방송사는 각 방송사가 제시한 시간대가 서로 달라 협의 끝에 추천을 통해 선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최종 KBS제주본부로 확정됐다.

2차 토론회는 방송사와 협의를 통해 9월 3~4일 중 이뤄진다.

2차 토론회에는 원희룡 제주자치



용논이오름에서 추억 만들기 후퇴지근한 날씨가 계속된 13일 제주시 구좌읍 용논이오름을 찾은 도민·관광객들이 자녀들과 연날리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도시사가 참석해 제2공항 반대 촉구 1대1 토론회를 벌인다.

토론회주제와 진행방식, 시나리오 등은 추후 방송사와 상세 협의를 거

쳐 결정될 예정이다. >>관련기사 2면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7면 기획 / 제주에 성평등 문화가 깃든다... 부산 사상구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F
수제두부전문점

1F
베이커리 카페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한 수제두부

순수한 둬비

전래 제주 손맛 그대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문로 37-11(용담일동)
T. 064) 747-1361

용담동 310-11번지,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는 반세기 동안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콩을 삶으며 두부 그 이상을 꿈꿔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서문두부의 꿈, '순수한 둬비'를 펼칩니다. 오직 제주콩, 천일염에 불을 더해 매일 신선한 두부를 만들고, 그 순수한 두부로 둬비식빵에서 보말 순두부 까지 맛의 향연을 펼칩니다. '뭘 먹지?'하는 고민은 '순수한 둬비'에게 맡겨주세요,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한 한끼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반세기, 이 자리에서, '순수한 둬비'가 새벽녘마다 불을 밝히고 건강한 한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